

코로나에 음식·숙박 취업자 최대 ↓ ...4명 중 1명 100만원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이 1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전체 취업자 2656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산업 대분류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7만7000명으로 지난 2014년 상반기(207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2000명(9.2%) 쪼그라들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도 175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 줄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353만6000명)도 1년 전보다 12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결혼 등을 미루면서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6만명)도 전년보다 9만9000명 뒷걸음

코로나19 대면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 큰 폭 ↓ 음식·숙박 취업자, 2014년 상반기 이래 최소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 월 200만원 못 받아

질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통계 조사 시점인 4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 감소가 가장 컸다"면서 "음식점업 취업자가 가장 크게 줄었으며 아이돌 학원 등이 있는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도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 중분류로 봐도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는 19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1000명(-9.4%) 줄어 들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 봉쇄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수출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해당 분야 취업자도 5만명(-9.8%) 쪼그라들었다.

반면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8만8000명(7.7%) 늘어난 124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1991

만9000명의 월 임금 수준을 살펴보니 100만원 미만 8.9%, 100만~200만원 미만 22.6%, 200만~300만원 미만 32.5%, 300만~400만원 미만 17.1%, 400만원 이상은 18.9%의 분포를 보였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꼴인 31.5%는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비중은 각각 0.8%포인트(p), 1.7%p 하락했으며 200만원 이상 비중은 68.5%로 전년보다 2.6%p 상승했다.

이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됐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임금 수준도 여전히 저임금에 머무르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25.5%는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었다.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비중은 37.7%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63.2%)는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셈이다. 4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임금자의 비중은 1.8%에 그쳤다.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는 26.4%는 매달 100만원보다 적게 챙겼으며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중은 3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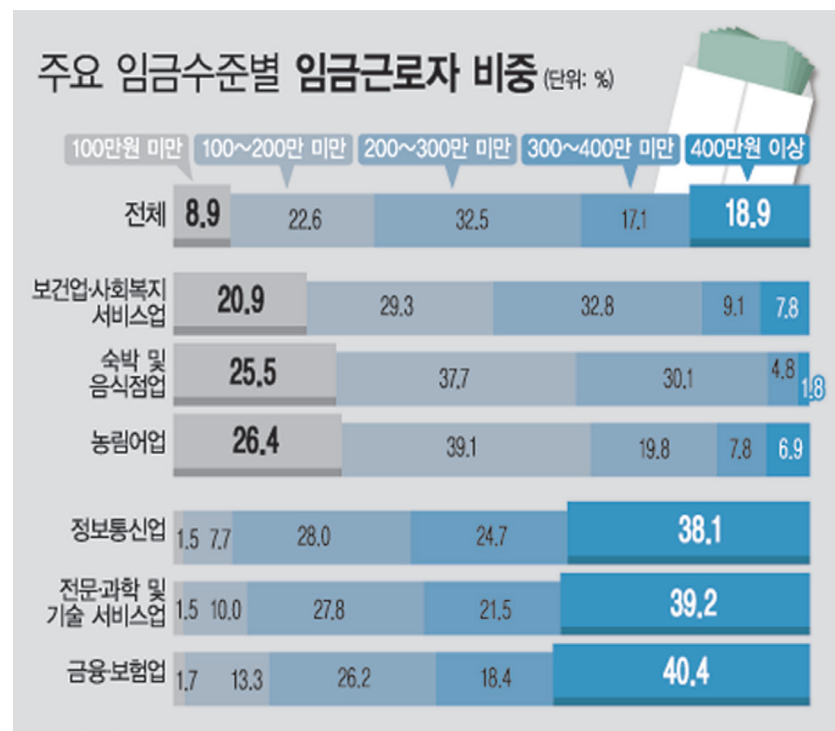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의 65.5%는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0.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7.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45.2%),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4.5%) 등도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 구분하면 단순노무자,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크게 뒤떨어졌다. 단순노무자의 25.2%는 월 100만원을 못 받았으며 43.6%는 월급이 100만~2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단순노무자의 68.8%가 월 200만원을 못 버는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59.6%도 월 200만원 미만을 벌었다.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40.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9.2%), 정보통신업(38.1%)이 월 400만원 이상을 가져



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77.3%가 월 4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32.6%도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챙겼다.

전체 취업자를 연령 계층별로 살펴 보면 중분류 기준 15~29세가 가장 많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48만7000명)이었다. 30~49세는 교육 서비스업(94만5000명)이었으며 50세 이상은 농업(124만3000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문직별 공사업(105만7000명), 여성은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120만6000명으로 제일 많았다. 학년으로 구분하면 대졸 이상은 교육 서비스업, 고졸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중졸 이하의 농업이 각각 148만1000명, 106만2000명, 85만4000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선욱 기자



소비자원, 소형 전기밥솥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 나타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형 전기 밥솥이 제품별로 보온 후 밥맛, 취반시간 등의 성능에 차이를 보였다고 품질 비교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립 41주년 기념...광주점 한정판 굿즈 증정

오는 23일부터 7·15·50·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3일부터 롯데백화점 본점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레드로 감성을 품은 한정판 굿즈(goods)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광주점은 유행함과 즐거움을 주는 레드로 문구세트 2종과,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호텔 바스 어메니티(욕실용품) 2종 등 총 4종류의 굿즈를 기획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드로 문구세트 굿즈는 롯데제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주시 후레쉬, 스피어먼트, 후레쉬먼트 등 3종의 옛 겸 디자인을 활용해 '볼렌 5종+틴케이스' 세트와 '노트 플래너'

세트로 구성했다. 레드로 감성이 듬뿍 담겨 있어 고객에게 추억의 향수와 즐거움을 선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바스 어메니티 굿즈는 실제 5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용품으로 고품질을 자랑한다. 현대판 앤디 워홀로 불리는 팝 아티스트 '도널드 로버트슨'의 아트웍 자수가 들어간 '페이스 타일세트'와 '바스 로브 세트'로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창립 41주년 굿즈 사은품은 한정된 수량 때문에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당일 7·15·50·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각각 펜·노트 플래너·페이스타일·바스 로브 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저가항공도 좌석 떼고 짐 싣는다...항공 新수요 창출 모색

“편당 2천만~8천만원 매출로 새 수익원 기대”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LCC) 3사도 유류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 운송에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최근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여객 수요가 줄자, 지난 4월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해 1~9월 항공여객은 3138만 명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 9278만 명 대비 약 66% 감소했으며,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인 187대가 가동을 멈췄다.

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LCC 3개사도 유류 여객기를 활용한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의 기회를 잡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여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누적 매출액은 항공사별로 약 2억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직접적인 매출유발 효과 이외에 인건비, 항공기 리스료, 주기료(항공기가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공항 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 미운항 시에도 발생하는 높은 고정비를 감안할 때 회사의 영업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CC 객실 내 화물 운송 첫 비행은 진에어 B777 여객기로, 오는 24일부터 인천~방콕 노선에 전자제품 약 2t 가량을 수송한다.

진에어는 객실 내 좌석 393석 중 32석을 제거해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으며, 남은 78석도 25kg 미만의 소형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객실 내 화물을 싣게 되면 수송능력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 수송량은 B777 기준 15t이지만, 실내 개조를 통해 최대 10t까지 탑재 공간이 확장돼 1회당 수송량이 25t까지 늘어난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사용할 B737 기종도 하부 화물칸 4t, 객실 4t 등 1회당 8t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에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무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행복주택, 청년 1인 가구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격에 점정고시 합격자 등도 추가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청년 1인 가구 등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만 19~39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금융을 지원받아 대도시권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에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자동차 2468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세대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혼부부 등 세대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의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반면, 청년 1인 가구

인 단독 세대주나 부양의무가 없는 세대원인 청년은 '80%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청년층 소득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이번 100%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고등학교 졸업·중요 2년 이내 등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점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확대했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미임대 주택이 발생했을 때 소득기준을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주택 재입주 제한도 완화했다.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준보다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출산, 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희기자